

◎ 高麗大, 전문대학원 학점교환 합의

고려대 교무처는 '93 학년도 1학기부터 경영대학원, 정책과학대학원 및 국제대학원 등 3개 전문대학원 간의 공동과목 개설 및 학점교환이 가능케 되었다고 발표했다. 전문대학원 교학부장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토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△해당 대학원간의 수업시간을 통일한다. △이수구분은 각 대학원에서 정하도록 한다. △동일 과목은 가능한 한 이중으로 개설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한다. △수강신청은 주임교수의 허락을 받아서 한다. △해당 대학원에서는 학칙시행체적으로 타대학원 개설과목 성적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마련해야 한다.

◎ 東亞大, 국제의학학술제 개최

동아대는 지난 11월 5일부터 사흘간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의과대 신설 5주년기념 제1회 동아 국제의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. 이번 학술대회는 심맥관학·중양학·장기이식 등을 주제로, 미국·독일·일본·중국·벨기에 등에서 각 분야별로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학자들이 초청되었다. 특히 중국 연변의학원장, 청도의학원장, 평양의대학장과 평양의학원장 등이 초청되었다. 첫날에는 의학특강 및 환영만찬회, 둘째날에는 장기이식, 중양학, 셋째날에는 심맥관학에 대한 학술대회를 가졌다.

◎ 仁荷大, 박사후과정 연구원제 운영

인하대 대학원에서는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박사후과정 연구원제(post doctoral research fellowship)를 신설, '92년 2학기부터 운영하였다. 이는 박사학위 취득 후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40세 이하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추천을 통해 지도교수와 1년 단위의 연구계약을 맺고, 연간 일정의 연구비를 지급받으며 지도교수와 공동연구를 수행케 하는 제도이다.

이에 지난 학기에는 러시아인 2명을 포함, 기

제공학과 3명, 화학과·생물학과 각 2명, 건축·해양·행정학과에 각 1명씩 총 10명의 연구원이 채용되어 연구중에 있다.

이 제도에 대해 대학원측은 박사후과정 연구원의 전문분야에 대한 더 깊은 연구와 함께 석·박사과정 대학원생들에게 연구방법 파급을 통한 연구의 효율성 제고와 대학원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타대학들도 이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.

◎ 朝鮮大, 유전공학 국제심포지엄 개최

조선대는 지난 10월 29,30일과 11월 3일에 동대학 자연과학관에서 '유전자치료 및 유전공학'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. 이날 심포지엄에는 美 미시간대 버나드 폭스 교수, 하버드 의대 시카오 모리모토 교수, 美 하네단대 진병관 교수, 서울대 [경진하·홍주봉 교수, 조선대 최철희·이정섭 교수, 한국 농생물학연구소의 김주곤 박사, 과학기술연구원의 이정준 박사 등 9명의 국내외 석학들이 참석, 유전공학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.

□ 교수 補職人事 □

- 高麗大
 - 언론대학원장 : 林尙源
 - 산업대학원장 : 閔滿基
 - 신문방송연구소장 : 元佑鉉
 - 기초과학연구소장 : 崔永翔
 - 국제비틀문제연구소장 : 桂禧悅
- 龍仁大 부총장 : 金正幸
- 西江大 총장 : 朴 弘
- 麗水水産大 학장 : 金正翰
- 嶺南大 총장 : 柳昌佑
- 朝鮮大
 - 학생처장 : 정현상 기획처장 : 박성규
 - 인문대학장 : 박윤환 약학대학장 : 김성호
 - 경상대학장 : 윤주한 이부대학장 : 유병수
 - 산업대학원장 : 김철순 신문사주간 : 한옥근
 - 통일문제연구소장 : 오수열
- 中央大 총장 : 金玟河
- 韓國體育大 학장 : 宋錫英